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2014/15시즌 곡물 물동량은 소맥 물동량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옥수수과 대두 물동량은 전 시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시황은 7월에 저점을 기록한 뒤 최근 들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 4분기 본격적인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시황 급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표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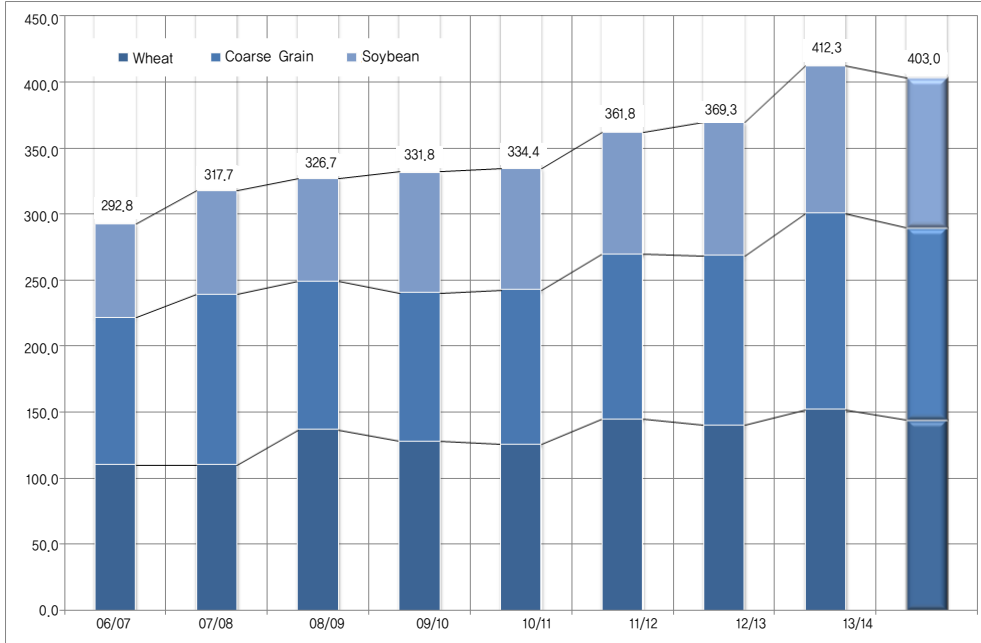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Wheat (a)	128.1	125.7	144.8	140.5	152.2	144.1
Coarse Grain (b)	112.3	117.0	124.8	128.1	148.5	145.6
Soybean (c)	91.4	91.7	92.2	100.7	111.6	113.3
Total (a+b+c)	331.8	334.4	361.8	369.3	412.3	403.0
전년 대비 증감률(%)	1.6	0.8	8.2	2.1	11.7	-2.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ydjung@kamcosimc.com, 02-2189-5512.

그림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영국의 해운시황 전망 기관인 ‘Clarkson’은 최근 자료에서 2014/15 시즌 대두(Soybean)를 포함한 곡물 해상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2.3% 감소한 ‘4.03 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곡종 별로 보면 소맥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8%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oarse Grain 물동량 또한 2% 가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두 물동량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월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2014/15 시즌 소맥과 대두 물동량은 전월 전망치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Coarse Grain 물동량은 전망치가 ‘3300 만 톤’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작황이 개선되며 수출 여력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U.S.D.A(美 농무성)은 8월에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2014/15 시즌 소맥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같은 기준으로 옥수수는 4.6% 감소, 대두는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I.G.C(세계 곡물 위원회)는 2014/15년 소맥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5.2% 감소하는 한편 옥수수는 3.3% 감소할 것으로, 대두 물동량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Clarkson, USDA, IGC 세 기관들의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 전망치는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소맥 물동량 감소폭이 가장 크고 옥수수 물동량이 소폭 감소하며 대두 물동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큰 흐름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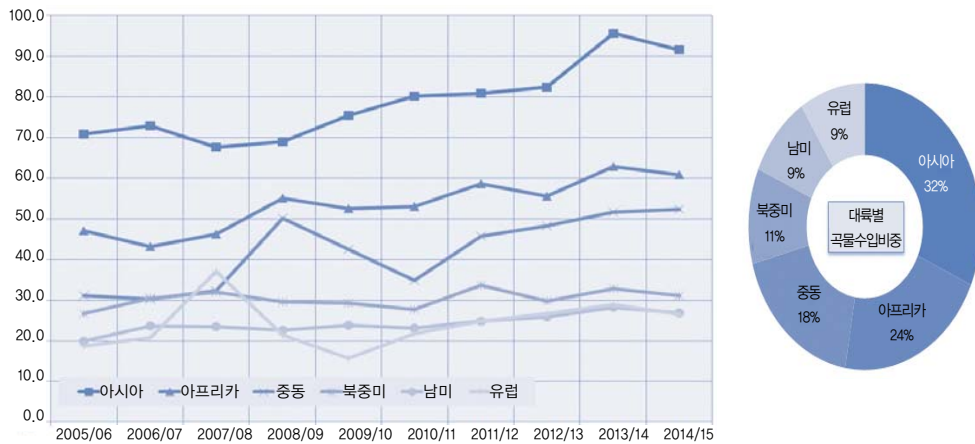
표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243	270	266	297	289	-2.7
아 시 아	80.2	80.9	82.4	95.6	91.6	-4.2
아프리카	53.1	58.6	55.5	62.9	60.9	-3.2
중 동	34.9	45.7	48.3	51.6	52.4	1.6
북 중 미	27.7	33.7	29.7	32.9	31.2	-5.2
남 미	23.1	24.8	25.8	28.3	26.8	-5.3
유 럽	21.8	24.8	26.7	28.9	26.5	-8.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그림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및 수입 비중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 대륙별 곡물 수입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를 보면 2014/15 시즌에는 중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곡물 수입량이 전 시즌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남미, 북중미 대륙의 수입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곡물 수입량의 32%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2014/15 시즌 곡물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35%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는 지난 2013/14 시즌에 중국의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 수입량을 늘렸던 것이 2014/15 시즌 들어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일본의 2014/15 시즌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3% 증가한 '2430만 톤'으로 전망되며 대한민국은 4% 증가하는 반면 대만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전 세계 곡물 수입량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15 시즌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가장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이집트의 2014/15년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알제리 등도 수입량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의 경우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곡물 수입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2014/15 시즌 사우디의 수입량이 전 시즌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라크와 이스라엘 등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란, 예멘 등은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남미 지역에서는 2014/15 시즌 브라질의 곡물 수입량이 전 시즌 대비 13% 가량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은 구 소련권 국가들은 곡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지역은 감소하며 전체 수입량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소맥 수출량 추이와 전망

표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25.7	144.8	140.5	152.2	144.1	-5.3
미 국	35.7	27.9	27.5	31.1	26.5	-14.8
유 럽	22.1	15.6	21.7	30.4	25.5	-16.1
캐 나 다	16.3	18.2	18.7	21.9	22.6	3.2
호 주	18.5	23.1	21.3	18.5	18.9	2.2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그림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및 수출 비중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 국가별 소맥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2014/15 시즌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5.3% 감소한 약 '1.4 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와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전 세계 소맥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4/15 시즌 수출량이 '2650 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시즌 대비 15% 가량 크게 감소한

수치이며 전월 전망치 대비 '210 만 톤'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18%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14/15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16% 가량 크게 감소한 '2550 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량 전망치와는 달리 금월 전망치는 전월 대비 '200 만 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수출 비중이 각각 16%와 15%로 집계되며 2014/15 시즌 수출량 전망치는 전 시즌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금월 전망치는 전월 전망치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4/15 시즌 소맥 물동량은 미국과 유럽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Coarse Grain 수출량 추이와 전망

Coarse Grain 물동량의 경우 2014/15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330 만 톤' 가량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전체 수출국 중 33%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2014/15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4.1% 증가한 '4770 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70 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특히 2014/15 시즌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등급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미국의 Coarse Grain 수출량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4/15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36% 가량 크게 증가한 '2170 만 톤'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잠시 빼앗겼던 2위 수출국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월 전망치는 전월 대비 '10 만 톤'가량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14/15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10% 가량 줄어든 '2030 만 톤'으로 전망되나 전망치 자체는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되고 있고 정정 불안이 계속되며 앞으로도 전망치는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17.0	124.8	128.1	148.5	145.6	-2.0
미 국	52.0	44.7	22.3	45.8	47.7	4.1
아르헨티나	18.5	20.2	28.1	16.0	21.7	35.6
우크라이나	7.9	16.1	15.9	22.6	20.3	-10.2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그림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및 수출 비중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 대두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4/15 시즌 대두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5% 증가한 약 '1.1 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2014/15 시즌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전 시즌 대비 3.4% 증가한 '4560 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140 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의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생산량이 늘고 있어 신곡 수출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14/15 시즌 대두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1.6% 감소한 ‘4500 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와 변동이 없는 수치이며 미국과 거의 비슷한 양을 수출하며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91.7	92.2	100.7	111.6	113.3	1.5
미 국	41.0	37.2	35.9	44.1	45.6	3.4
브 라 질	30.0	36.3	41.9	45.8	45.0	-1.6
아르헨티나	9.2	7.4	7.7	8.5	8.5	0.0

자료: USDA

그림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및 수출 비중



자료: USDA / ※ 국가별 Soybean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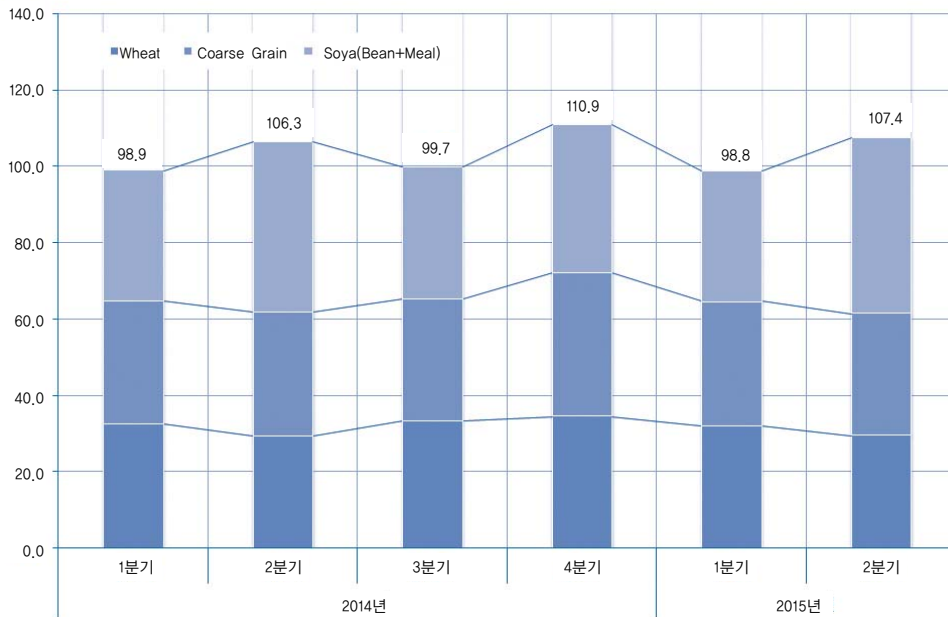
표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Wheat	32.4	29.4	33.3	34.5	31.9	29.5
Coarse Grain	32.2	32.4	31.8	37.6	32.6	31.9
Soy(bean+Meal)	34.3	44.5	34.6	38.8	34.3	46.0
Total	98.9	106.3	99.7	110.9	98.8	107.4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AUG, 2014.

그림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JUNE, 2014.

영국의 해운 시장 리서치 기관인 'SSY'가 집계한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금년 3분기 곡물 물동량은 2분기 대비 6%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대두와 대두박 물동량 감소에 원인이 있다. 반면 3분기 소맥 물동량은 2분기 대비 13% 가량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북반구 지역의 신곡 수출이 증가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금년 4분기 곡물 물동량은 3분기 대비 11% 가량 크게 증가하며 P'max 와 S'max 시황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곡종별로는 4분기 Coarse Grain 물동량이 전 분기 대비 18% 가량 크게 증가하는 한편 대두박을 포함한 대두 물동량 또한 증가율이 12% 선에 이를 전망이다이며 소맥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3.6%로 예상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옥수수과 대두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됨에 따라 4분기 곡물 수출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화물선 운임 상승에 대한 선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최근 건화물선 시황

그림 7. 최근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anamax 선형을 중심으로 시황 약세가 계속되며 7월에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브라질 중국 간 철광석 화물이 조금씩 증가하며 Cape 시황이 반등하는 한편 Panamax 시황도 저점을 인식한 뒤 동반 상승세를 시현, 최근에는 모든 선형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선 시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광석 물동량의 경우 상반기까지 중국의 금융 규제와 재고 부담 등으로 증가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브라질의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시황 상승 요인이 많아지며 운임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탄 물동량의 경우 금년에 가장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환경 규제 등에 따른 물동량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른 선형에 비해 P'max 시황이 더 저평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디아의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량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화력 발전을 위한 연료탄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로 단기적인 물동량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곡물 물동량 또한 계절적인 영향과 동시에 중국이 곡가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는 등 물동량 감소 요인이 많아지며 시황 약세로 이어졌다.

8월 들어 전 선형에 걸쳐 시황 회복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Cape 시황은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P'max 선형 또한 시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공감대 번지며 장기 기간 용선으로 선박을 확보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S'max 시황 또한 흑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곡물 선적량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금년 4분기 건화물선 시황은 상반기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특히 Cape 시황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는 동 선형의 용선료가 현물 대비 2배 이상 높은 약 \$27,000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표 7. 수역별 · 기간별 곡물 운임 현황

단위: US\$/MT

기 간		USG 운임	PNW 운임
2014년	9월	50.75	27.61
	10월	52.44	29.45
	11월	52.74	30.11
	12월	51.16	29.44
	4분기	52.11	29.67
2015년		52.21	29.77
2016년		52.75	30.27

자료: 캄코선박운용(주)

영국의 다른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Drewry’는 지난 7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일본에서 양하하는 곡물 운임(이하 USG 운임)이 톤 당 \$40.4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전월 대비 톤 당 \$1.60 낮은 수준이며 금년도 전체 평균값인 \$47.0 대비 톤 당 \$6.6 낮은 수치이다.

현재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운임도 7월 운임 대비 조금 높은 약 \$44 수준으로 계산되는데 선물 시장에서의 USG 운임은 스팟 마켓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4분기 시황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신곡 출하에 따른 운임 상승 예상으로 매우 큰 Contango 현상이 나타나며 4분기 USG 운임이 현물 대비 톤 당 \$8.0 가량 높은 \$52.11 선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PNW 운임 또한 4분기 운임이 \$30.0 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해운 시황의 단기 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금년 4분기까지 시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작년처럼 많은 철광석을 일시에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시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과, 브라질의 자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작년 보다 더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4분기 시황이 적어도 현재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